

가성비에 프리미엄까지 ‘취향존중’ “민족의 명절, 감사의 마음 전하세요”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세트 시장이 본격적인 성수기에 접어들었다. 고물가 기조 속에서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려는 수요는 여전히 견조하지만, 소비자들의 선택 기준은 한층 깊어진 모습이다. 단순한 가격 비교를 넘어 가격 대비 만족도, 실속과 프리미엄의 균형, 건강과 간편성 등 선물에 담긴 ‘의미’까지 함께 따지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 이 같은 변화에 맞춰 식품·유통업계도 설 선물세트 전략을 다변화하고 있다. 가치소비를 중시하는 MZ세대 수요를 겨냥해 맞춤형 상품 구성을 강화하는 한편, 기존 인기 상품을 재해석하거나 명인·브랜드와의 협업을 통해 차별화된 이색 선물세트를 선보이고 있다. 한정판·프리미엄 라인업 등 고급화 전략도 확대되는 추세다. 가성비를 앞세운 실속형 세트부터 프리미엄·리미티드 에디션까지 선택의 폭을 넓어졌다. 이번 기획에서는 식품·유통업계가 선보인 설 선물세트 트렌드를 짚고, 소비자 선택의 기준과 함께 달라진 명절 선물 풍경을 살펴본다.

<편집자주>

혜택 넓힌 ‘기프트 클럽’ 매출 2배 ↑

롯데백화점

우량 고객 대상 특별 혜택 제공
구매 금액대별로 5~7% 상품권
온라인 고객 8% 엘포인트 적립

롯데백화점이 명절 기간 100만원 이상 구매하는 우량 고객을 대상으로 특별 혜택을 제공하는 ‘롯데 기프트 클럽’이 명절 매출의 핵심 동력으로 자리 잡았다.

‘롯데 기프트 클럽’은 명절 기간 식품 선물세트를 합산 100만원 이상 구매하는 고객에게 사은품 등 차별화된 혜택을 주는 멤버십 서비스다. 지난해 추석 처음 선보인 이후, 직전 연도 대비 우량 고객 수가 20% 이상 증가하고 명절 매출 기여도가 역대 최대인 60%대를 기록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이에 롯데백화점은 이번 설을 맞아 혜택 범위를 온라인까지 대폭 넓혀 준비했다.

/손종욱 기자 handbell@metroseoul.co.kr



서울시 종로구 소공동 롯데백화점 본점 지하 1층에 마련된 롯데 기프트 클럽 부스.

역대 최대 물량에 프리미엄 상품 1300종

현대백화점

한우 선물세트 10만여 개 준비

현대백화점이 2026년 설을 맞아 이달 16일까지 압구정본점 등 전국 점포 식품관과 온라인몰 더현대닷컴·현대H몰 등에서 ‘설 선물세트 본판매’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 기간 동안 현대백화점은 정육·수산·청과·주류·건강식품 등 엄선한 프리미엄 선물 상품 1300여종을 선보인다.

명절 대표 선물인 한우 선물세트는 역대 최대 물량인 10만여 개를 준비했다. 고객의 다양한 취향을 반영해 1++ 등급 중에서도 최고 마블링 스코어(BMS) No.9 한우로만 구성한 ‘현대명품 한우 넘버나인’(300만원)과 ‘현대명품 한우 프리미엄 세트’(200만원) 등 초프리미엄 상품을 내세운다.

구이용 세트 물량도 지난 설 대비 30% 이상 늘렸다. 살치살, 새우살 등 고급 부위를 담은 ‘현대 한우 구이모둠 매’와 스테이크용으로 구성한 ‘현대 한우 스테이크 매’

등을 만나볼 수 있다. 1~2인 가구 증가에 맞춰 200g씩 개별 진공 포장한 ‘현대 한우 소담 시리즈’도 다양하게 마련했다. 소 한 마리의 다양한 부위를 담은 ‘현대 한우 소담 모둠 세트’는 26만원, 구이용으로 구성된 ‘현대 한우 소담 매’는 38만원에 선보인다.

과일 선물세트는 고당도·신품종을 중심으로 차별화했다. 사과·배 중심의 전통적인 구성에서 벗어나 사인마스캣, 애플망고, 한라봉 등 디저트 과일 혼합 세트를 대폭 강화했다. 특히 비파과 당도 측정을 통해 일반 과일보다 당도가 높은 상품만 선별한 ‘H스위트’ 라인업을 확대했다. 포장재 역시 플라스틱 대신 별집 구조의 100% 종이 완종재 ‘하니쿠션’을 사용해 친환경 가치를 높였다.

수산물에서는 길이 35cm 이상의 굴비로만 구성된 ‘현대 명품 참굴비 세트’를 10세트 한정으로 준비했다. 또한 죽염으로 쟁반을 한 ‘인산자죽염으로 만든 영광 참굴비’(33만원)와 조리 편의성을 높인 ‘바로 굽는 영광 참굴비’(12만원) 등 다양한 프리미엄 굴비 세트를 소개한다.

/손종욱 기자



현대백화점이 2026년 설 명절 본판매에 돌입했다.

/현대백화점